

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산업·경제 분과위원회 주요 제안내용

□ 인허가 규제 완화를 통한 귀농귀촌인 유입 증대 방안

1.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가 필요함

- 농업창업 대출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어 농협에 대출 신청을 하러 가면 담보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처음 귀농 상담을 할 때 해당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, 실질적인 담보 설정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(농신보)에서 대신 설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.
- 농업창업 대출지원 사업의 신청자격, 대출방법, 상환방식 등을 처음 귀농 상담할 때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(농협)에도 사업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어 불필요한 담보 설정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.

2. 귀농귀촌 지원센터 전문 상담 인력 채용 건의

- 현실과 동떨어진 꿈이나 계획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에게 남해의 농업 환경 및 농업 소득, 기존 주민들과의 융화, 소득 창출 방법 제시 등 현실적인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으며 남해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분들이 없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 채용을 건의함.

3. 귀농귀촌인 데이터베이스화 및 포상제도 제안

- 귀농귀촌인이 연간 6백명 가까이 되면 남해군 인구의 1% 이상 되는 것으로 매년 축적된다고 보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임.
- 귀농귀촌인 중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분들의 경험이나 경력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, 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능동적으로 하면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임.

- 또한, 귀농귀촌인 제안제도를 만들어 제안사항에 대하여 점수를 매겨 포상한다면 그분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남해군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함.

4. 귀농귀촌인 정주를 위한 인프라 구축 건의

- 귀농인이 농가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역여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부지선정, 개발행위 허가, 측량, 오페수, 건축, 취득신고 등 여러 절차를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담당자 멘토가 있어서 부지 선정부터 각종 절차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음.
- 실제로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현황 도로에 대한 동의 여부가 제일 큰 문제임. 8월 초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발효되는데 남해군에서 실제 현황도로인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소유자를 설득시켜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로로 만들거나, 지적재조사와 겸해서 집이 들어올 수 있는 도로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해서 도로로 만들어 놓는 등 미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봄.
- 남해군 내에는 계획관리지역, 생산, 보전 등 비교적 건축이 용이한 관리지역이 26% 내외 정도로 30%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. 현재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·확대하여 단위 면적당 건폐율을 확대해 주고 농림지역 중 농·도로변이나 임야 중 보전산지를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바꾸어서 관리지역 자체를 확대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 공급을 미리 준비하는 등 귀농귀촌인 정주의 공간 확보를 위한 남해군 도시 관리 계획이 필요함.

5. 융통성 있는 건축행정 및 연륜이 있는 직원 복합민원팀 배치 요청

- 건축물에 대하여 합동단속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담당자들이 융통성 있게 건축 행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림.

- 건축물 증·신축할 때 도로가 아니라 농로라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하여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복합민원팀 직원은 신규 말고 경험과 연륜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면 좋겠음.

6. 남해군에서 대규모의 축사를 건축할 것을 제안함

- 거주지와 거리 제한, 상수도 보호법 제한 등으로 축사 건축이 쉽지가 않고 소만 키워서 먹고 살려면 50두 이상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5억원 이상이 듬.
- 남해군에서 법에 걸리지 않는 곳에 소를 2만두 정도 키울 수 있는 축사를 건축하여 귀농하는 분들에게 분양을 하거나 임대 또는 출자를 받는 식으로 한다면 귀농인들 수입도 올리고 남해군 전체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 남해군에서 대규모의 축사를 건축할 것을 제안함.

7.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배송시스템 도입 제안

- 귀농인이 농기계를 다 구입하려면 1억5천에서 2억원 가량 드는데 그 정도 투자해서 농사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임대를 많이 하고 있음.
- 한참 바쁜 시기에는 농기계를 빌리러 가는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실어올 차량도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음. 타 지역에서는 콤팩트 이나 포크레인 등 농기계를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준다고 하는데 남해군도 농기계 임대를 신청한 농업인에게 해당 농기계를 가져다주는 농기계 배송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람.